

제주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유형과 평가

정광중¹⁾

The Types and Evalu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Seonheul Gotjawal in Jeju

Jeong Kwang-Joong¹⁾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선흘곶자왈에 분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형 구분함과 동시에 자원의 속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용을 전제하여 자원별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흘곶자왈 내의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은 외형적 형태를 토대로 점적(點的) 유형, 선적(線的) 유형 및 면적(面的)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점적 유형의 자원에는 숯가마(또는 숯가마 터)를 비롯한 6개가 포함되며, 선적 유형의 자원에는 경계용 돌담을 비롯한 3개가 포함된다. 그리고 면적 유형의 자원에는 산전(숲속에서 개간한 밭) 등 4개가 포함된다. 이들 3가지 유형의 자원은 숯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요소, 농업활동에 필요한 요소, 일시적인 거주나 휴식에 필요한 장소로 구성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과거에 선흘리 주민들이 생활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했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오늘날 선흘곶자왈 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은 조선 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 후반까지 선흘리 주민들의 생활역사의 단면을 복원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존재로서 가치성이 부각된다. 활용성을 전제한 역사문화자원의 평가 작업은 4가지 평가 지표(희귀성[시대성], 원형성(도), 경제성, 접근성)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4가지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숯가마 등 3개, 3가지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노루통(야생노루를 포획하기 위한 뒷) 등 2개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가지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물통(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 등 4개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2가지 이상의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들은 앞으로의 활용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도를 전제할 때 본 연구에서 행한 평가 결과 자체가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선흘곶자왈, 역사문화자원, 점적 유형, 선적 유형, 면적 유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distributed in Seonheul Gotjawal, based on certain standards or criteria, identify the attributes of the resources and evaluate each resource's valu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resources would be utiliz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distributed within Seonheul Gotjawal can be classified into a dot type, line type and side type, based on exterior shape. Six resources including charcoal kilns(or charcoal kiln site) are distributed in the dot type resources, and three resources including stone walls for boundaries are included in the line type. The side type includes four resources including forest fields(field cultivated in forest). These three types consist of elements necessary to produce charcoal, elements required for agricultural activities and the places for temporary dwelling or rest. Most of these exhibit characteristics that indicate that the residents in Seonheul-ri

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ongkj@jejunu.ac.kr

built these resources as the means to support their household economies.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distributed within Seonheul Gotjawal have value in that they can be employed to restore and understand some aspects of the life history of Seonheul-ri residents from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Period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and to the late 1960s. Concerning the evaluation work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utilization, the results have been drawn through four evaluation indices[scarcity(trend of the times), original attributes, economic attributes and accessibility]. As a result, the resources evaluated as having the highest ranking from four evaluation indices were 3 resources including the charcoal kiln. The resources evaluated as having the highest ranking from three evaluation indices were 2 resources including the roe deer trap to catch wild roe deer. The resources evaluated as having the highest ranking two evaluation indices were confirmed to include 4 including the water container(facility to enclose water). The resources evaluated as having the highest ranking from two or more of the evaluation indices are considered to have played an important function in the future utilization process. With regard to the utiliz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within Seonheul Gotjawal, it is deemed that the evaluation results carried out in this study will become important criteria for future evaluations.

Key words: *Seonheul Gotjaw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Dot Type, Line Type, Side Type*

1.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주의 선흘곶자왈은 역사문화자원의 보고라 할만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강창화·정광중의 연구(2014)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으며, 또 정광중의 연구(2012)와 정광중 외의 연구(2013)에서도 선흘곶자왈에 분포하는 일부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존재적 가치와 특성을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선흘곶자왈이라는 숲 속에 버려져 있던 역사문화자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고 또 앞으로의 활용도를 전제로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자원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원별 속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4가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자원별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구분에 따른 속성 분석이나 평가지표의 설정에 따른 자원 가치의 평가과정은 궁극적으로 향후에 이들 자원을 어떤 관점과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자원은 2012~2013년에 걸쳐 이미 정밀 조사하여 보고된 것이다¹⁾. 그러므로 연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조사는 2년간 봄과 여름기간(4~9월) 동안 주로 토·일요일에 행해졌으며 조사내용은 유형별 자원 수, 유형별 자원의 위치와 분포 밀도, 유형별 자원 특성(기능, 크기, 규모)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제주 곶자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나, 최근 10여 년 동안 곶자왈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송시태, 2000: 송시태·윤선, 2002: 송시태, 2006: 전용문 외, 2012)를 시작으로 곶자왈 내의 식생분포와 특징(신정훈, 2012: 이경미 외, 2012: 김대신·김봉찬·송시태, 2008), 곶자왈의 개발에 따른 보전과 환경문제(양수남, 2003: 김효철, 2006: Hong-Gu Kang, Chan-Soo Kim and Eun-Shik Kim, 2013), 또 곶자왈의 민속과 생활경제 등에 대한 연구(정광중, 2004: 송시태 외, 2007: 정광중, 2012: 정광중 외 2013)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시점까지는 지역별 곶자왈 내 자원의 분포나 자원 가치에 대한 평가 작업은 행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제주 곶자왈 내의 자원 유형을 분류하고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의 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연구지역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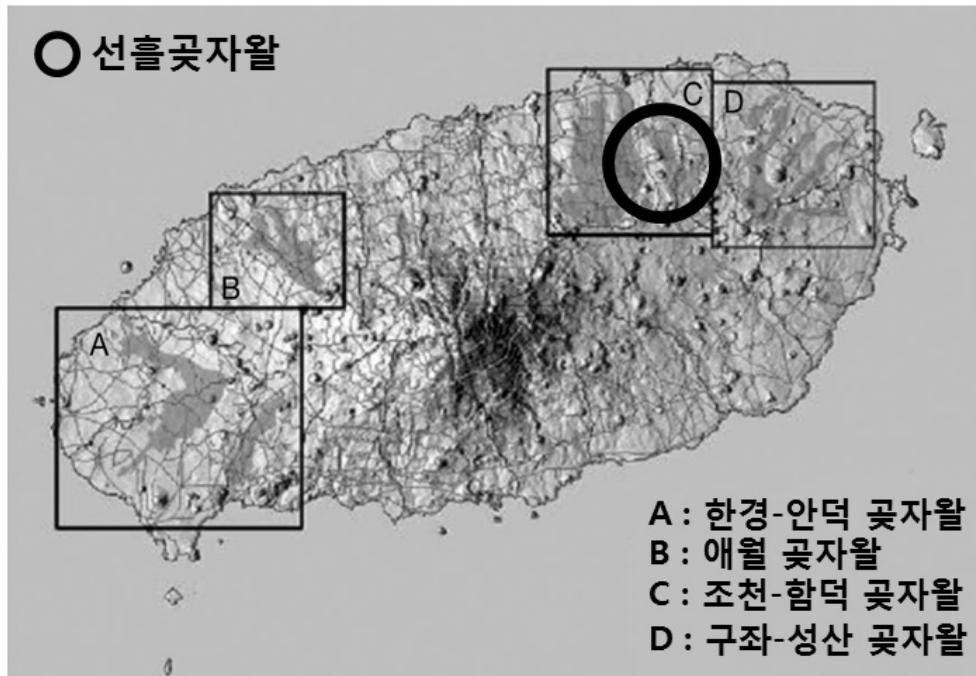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선흘곶자왈은 제주도내 여러 곶자왈 중에서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분포하는 곶자왈 지구이다(그림 1). 선흘곶자왈 주변에는 조천-대흘곶자왈, 함덕-와산곶자왈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곶자왈은 넓게는 조천-함덕곶자왈로 분류되어 제주도 동부지역의 구좌-성산곶자왈은 물론이고 서부지역의 애월곶자왈과 한경-안덕곶자왈과도 대비되는 상황에 있다.

선흘곶자왈은 마을주민들이 적어도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 말까지 숯을 생산하거나 산전을 일구어 보리, 조, 산드(육도) 등을 재배

하는 무대였으며, 심지어는 물이 잘 고이는 습지성 토지에다 자그마한 논(강못: 수전)을 조성한 후 논벼를 재배했던 무대이기도 하다. 또한 선흘곶자왈은 바쁜 농사활동 중에도 잠시 배고픔을 달래고 동물성 지방분을 섭취하기 위해 야생노루를 포획하던 사냥터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소적 특성을 지닌 선흘곶자왈은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과거로부터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오던 마을 숲이자, 동시에 농사활동과 사냥터 등 생활무대의 일부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앞선 연구에서 선흘곶자왈 내부에서 숯가마, 숯막, 산전, 강못(논), 노루텅(노루 함정), 물텅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입증된 것이다.

오늘날 선흘곶자왈은 생활무대로서의 영광은 뒤로



자료: 송시태(2000)의 자료를 일부 수정

<그림 1> 연구대상지역: 선흘곶자왈(조천-함덕곶자왈 내에 포함)

하고 지하수 함양과 경관 기능체로서,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서 제주 자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탐방객들에게 큰 찬사를 받고 있다. 결국 선흘곶자왈의 선도적 활용은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곶자왈의 존재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2.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구분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자원은 그것의 외형적 존재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즉 점적(點的) 유형, 선적(線的) 유형 및 면적(面的) 유형²⁾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이와 같은 자원 유형화의 배경은 향후의 자원 활용도를 전제한 것이며, 동시에 개별 자원의 속성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자원 중에서도 점적 유형은 점상의 형태를 띠며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유형의 자원이다. 점적 유형에는 숯가마(돌숯가마)³⁾ 및 1회용 숯가마 터를 비롯하여 숯막, 노루텅(통), 물텅(통), 머들(돌무더기), 궤(바위굴) 등이 포함되며, 현재 선흘곶자왈 내에서는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고 또한 분포범위도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자원 유형이다. 선상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로 분포하는 선상 유형은 곶자왈 내의 임야를 구획하는 경계용 돌담, 또는 특정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개인별 경작지 가장자리를 두룬 경작지 돌담, 그리고 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 용암동굴이 포함된다. 선적 유형은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길게 이어지는 특성을 보이며 선사시대 때 일시적인 주거지로 이용되었던 용암동굴(목시물굴)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곶자왈 내부 곳곳에 널려있는 현무암으로 장식되어 나타난다. 더불어 이들은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과거에 목장 용지로 사용했거나 혹은 산전과 강못 등 농업활동이 행해졌던 일부 지구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지니는 면적 유형에는 농경을 위한 경작지 즉 산전과 강못이 전형적인 사례로 주목할 수 있지만, 이들 경작지 외에 점적 유형과 선적 유형을 포함하는 일정 지구 자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선흘곶자왈 내에서 확인된 생활문화유적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지구(생활유적 밀집지구)⁴⁾는 주요 사례로써 지적할 수 있다. 면적 유형의 자원은 부분적으로 선적 유형의 자원과 동일한 공간적 범위 내에 분포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들 3가지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은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선흘곶자왈 내의 어느 지구를 가더라도, 이들 3가지 유형 중 2가지 유형이나 3가지 유형이 구조적으로 연결된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생활문화유적이 집단적인 분포를 보이는 생활유적 밀집지구에는 3가지 유형이 독특하게 결합된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연관성과 구성적 특징을

<표 1>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구분

유형	실례	특징
점적 유형	숯가마터(돌숯가마, 1회용 숯가마), 작업장, 숯막[움막], 노루텅(통), 물텅(통), 머들, 궤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
선적 유형	경계용 돌담, 경작지 돌담, 용암동굴	개인별 소유 경계선이 다수
면적 유형	경작지(산전, 강못), 생활유적 밀집지구, 점적·선적 유형 자원이 동시에 분포하는 특정 지구	복수의 점적 유형 또는 선적 유형 자원이 포함

자료: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다면, 3가지 유형의 여러 자원들은 서로의 기능은 다르지만, 그것들의 공간적인 입지패턴은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특정지구에 많은 자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 장소에 특정자원(가령 산전, 강못)만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를 역사문화자원의 밀집정도와 입지패턴은 당시 주민들의 시대적 경제활동의 강약에 따라 곶자왈 내에서도 지구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3: 66-67).

3. 역사문화자원의 속성

1) 점적 유형

(1) 돌숯가마(2기)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중에서도 점적 유형에는 8개의 자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원수로는 약 150여 개 이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자원적 가치가 높은 돌숯가마는 2013년 10월 현재까지 2기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거의 원형(原形)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입구부와 정면 상단부의 일부가 파괴된 형태로 남아 있다(사진 1, 사진 2).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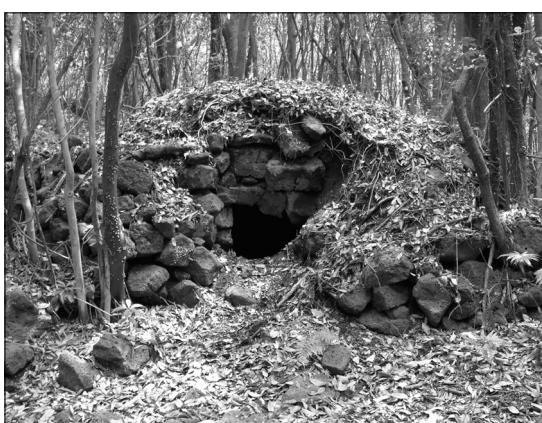
히 <사진 2>의 돌숯가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상부에 10여 그루의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조만간 붕괴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다(정광중 외, 2013: 42). 아무튼 이들 돌숯가마 2기는 선흘곶자왈의 여러 자원들을 충체적으로 부각시키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들 2기의 돌숯가마는 약 1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위치한다.

돌숯가마(1)은 해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숲으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선흘1리 마을 중심 부로부터는 약 1.15km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돌숯가마(1)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거의 반쯤 허물어진 숯막 1기와 1회용 숯가마 터 3기가 입지해 있다.

2기의 돌숯가마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시기까지 사용한 백탄용 숯가마이다. 따라서 현재 선흘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제로 숯을 생산했던 경험자가 없으며 한 세대 앞선 주민들이 사용했던 자원으로서의 희귀성을 지닌다.

(2) 1회용 숯가마 터

1회용 숯가마 터는 주로 현세대의 선흘리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약 20여 년 간 사용해온 숯가마로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사진 1> 돌숯가마(1)



<사진 2> 돌숯가마(2)

선흘곶자왈 내부 곳곳에 남아있다. 1회용 숯가마 터는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단독으로 분포하던가 아니면, 특정 장소에 여러 개가 밀집해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분히 이런 분포패턴은 과거에 숯을 제조하던 당시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숯 제조용 목재 확보와 관련하여 주변부에 분포하는 수종이나 그것의 서식 밀도, 또는 숯가마 축조에 필요한 돌, 흙, 물의 확보 등과 연관되는 장소선정과 깊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1회용 숯가마 터의 존재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외형적으로 파악되는 숯가마 터의 존재형태는 선흘곶자왈 내부의 특정장소에 원형과 타원형의 가장자리에 숯가마 축조에 사용되었던 돌담이 남아있는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숯가마 터에 따라서는 중심부가 낮게는 20~30cm, 깊게는 100~110cm 정도의 깊이로 패여 있는 것들도 있다 (사진 3). 그리고 원형이나 타원형의 숯가마 터 안쪽(돌담 안쪽)에는 숯을 구웠던 영향으로 나무들이 거의 자라지 않거나 간혹 동백나무 및 참나무류 등 아주 작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정도로 주변부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숯을 제조할 때 뜨거운 열기가 지표층과 그 하부에 오랫동안 전달된 탓으로 나무 씨앗이 떨어져도 발아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진 3> 1회용 숯가마 터(대형)

1회용 숯가마 터는 활용된 시기와 관련지어 볼 때, 2개의 숯가마 터가 거의 똑같은 장소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보인다(사진 3). 이것은 처음에 숯가마를 대형으로 지어 사용한 후에 나중에 다시 안쪽으로 소형이나 중형의 숯가마를 축조하여 재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숯가마 터의 외형은 원형이나 타원형의 돌담이 이중으로 잔존하게 된다. 1회용 숯가마의 크기는 돌담의 잔존상태를 근거로 할 때 직경 6m 이상(외부 직경)의 대형, 4~6m 정도의 중형, 4m 미만의 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a). 특히 대형 중에는 외부 직경(장축)이 9m를 초과하는 숯가마도 있으며, 소형 중에서는 3m 내외의 숯가마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4).

(3) 숯막[움막]

숯막[움막]은 숯을 굽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을 취하는 공간이다(정광중 외, 2013: 50). 더불어 휴식과 식사시간에는 내부에서 식사나 따뜻한 물을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화덕시설을 갖춘 숯막도 있다(사진 6). 이처럼 선흘곶자왈 내에 숯막을 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숯을 제조하는 시기가 대체로 농한기인 11~5월 사이이지만, 그 중심기간은 12~3월 사이이기 때문에



<사진 4> 1회용 숯가마 터(소형)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철이고, 동시에 숯 제조 과정은 1~2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을 때에는 무려 7~10일에 걸쳐 행해지기 때문에 휴식공간과 수면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 장소에서 많은 양의 숯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5명이 한 팀(동아리)을 이루어 야간작업까지 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로 휴식과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숯막은 숯 제조가 행해지는 기간에만 사용하는 일시적인 거주지이기 때문에 내부에 칸 구조가 있다거나 특별한 시설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일부 숯막의 경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화덕자리를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의 숯막은 돌담으로 4~5단 혹은 6~7단 높이로 쌓아 올리고 돌담 위에는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은 후 잔가지나 억새, 떠, 잡초 등으로 얹어 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형은 크게 원형과 방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사진 5~6), 남아 있는 숯막의 돌담 형태를 근거로 하자면 원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원형이든 방형이든 숯막 내부의 크기도 소형, 중형, 대형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숯을 제조할 때 1팀을 이루는 동아리 멤버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숯 제조 작업장

2013년 10월 현재까지 숯 제조를 위한 작업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장소는 단 1군데에 불과하다. 이 숯 제조 작업장은 앞에서 검토한 돌숯가마(1) 아궁이 앞에 위치한다(사진 7). 숯 제조 작업장의 형태는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돌숯가마 정면에 단순히 구덩이를 파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깊은 지점은 약 50~60cm, 얕은 지점은 10cm内外로 파악된다.

그런데 돌숯가마(1) 자체도 경사진 장소에 자라잡고 있기 때문에 돌숯가마 아궁이에서 작업장 구간도 다소 경사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돌숯가마 아궁이로부터 꺼낸 숯을 재빨리 작업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일차적으로 돌숯가마 안에서 구워낸 숯을 마무리 단계에서 재빠르게 작업장으로 이동시킨 후 재와 흙으로 덮어서 공기를 차단함과 동시에 불씨를 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돌숯가마에서 생산하는 숯이 일반적인 검탄(黔炭)이 아니라 백탄(白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궁이에서 작업장까지는 짧은 거리지만 처음부터 경사지도록 구안해 놓아야만 1분 1초라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구워낸 숯은 공기와 접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질 좋은 백탄을 만들 수 없다. 결과적



<사진 5> 원형 숯막[음막]



<사진 6> 방형 숯막[음막]



<사진 7> 숯 제조 작업장(돌숯가마 1호 앞)

으로 백탄을 제조하던 당시 사람들은 1,000°C 이상에서 구워낸 많은 양의 숯을 수분 내에 작업장으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5) 물텅(통)

선흘곶자왈에서 물텅은 사람들의 음용수 확보와 더불어 숯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산전과 강못을 경영하는 데도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물 확보를 위한 물텅은 중요한 존재로서 부각된다. 선흘곶자왈 내에는 기본적으로 ‘산물(生水)’ 즉 용천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물은

자연적으로 고여 있는 물을 얻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물텅에서 빗물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자연적인 물텅은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장소에 주로 진흙과 낙엽이 교대로 층을 이룬 후 쉽게 물이 고여서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숯을 제조하는 주변부의 특정 장소에서 계속 진흙을 채취한 자리에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강한 파호에호에 용암류(pahoehoe lava flow)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은 곶자왈의 지형적 특징을 잘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선흘곶자왈 내에는 부분적으로 파호에호에 용암류가 흐른 뒤 점토 성분을 띤 토양모재들이 퇴적되거나 또는 유수에 의해 흘러들어와 퇴적된 곳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물텅이 조성된 곳이 여러 곳에 분포한다(사진 8).

인위적인 물텅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특정 장소를 선택한 후 돌담을 높게 두르고 물이 고이도록 한 것이다(사진 9). 따라서 이런 물텅은 중산간 마을에서 사용하는 봉천수(奉天水)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지 만드는 과정에서 물이 고이는 바다 다짐이 정교하지 않고 규모 또한 작은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인위적인 물텅도 애당초 자연적으로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선택



<사진 8> 자연적인 물텅(곶자왈 주변부)



<사진 9> 인위적인 물텅(곶자왈 삼림 내)

하여 돌담을 두른 후에 조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선흘곶자왈 내에 인위적인 물탱의 분포는 일정한 규칙에 의하거나 혹은 곶자왈의 전체 면적에 비례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도 정확하게 몇 개가 위치하고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1회용 숯가마 터가 몰려 있는 지구를 비롯하여 산전이나 강못을 경영했던 주변 지구, 또 사람과 우마가 지나다니는 소로 주변에 많이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6) 노루텅(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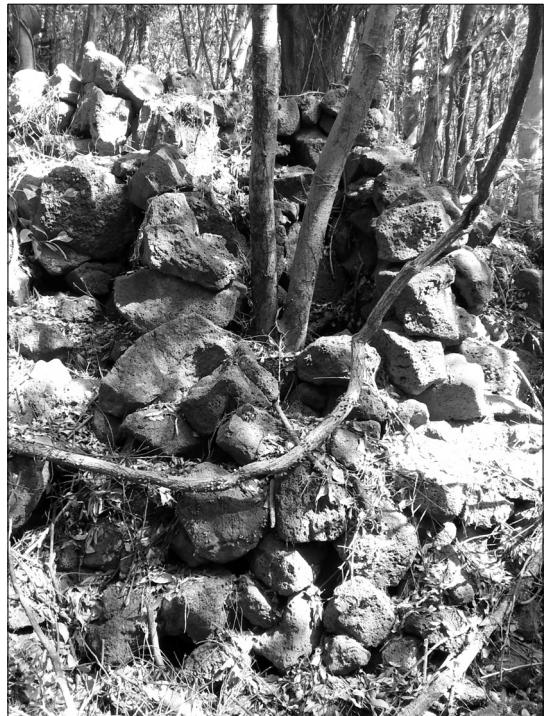
노루텅은 선흘곶자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시설로서 야생 노루를 잡기 위한 노루덫이다(사진 10~11). 노루텅은 돌담을 교묘하게 쌓아올려 만든 지혜의 작품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선흘곶자왈 내에서 발견된

노루텅은 7개이지만, 앞으로도 노루텅은 심층조사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수가 발견된 가능성이 있다.

노루텅은 곶자왈 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현무암을 재료로 삼아 야생노루가 지나다가 빠지도록 구안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노루가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면적($0.99\sim 1.32\text{m}^2/0.3\sim 0.4\text{평}$)을 확보한 후에 돌담을 상하로 높고 길쭉하게 쌓아올린 형태를 취한다.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남아 있는 노루텅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때 140(돌담 외부 기준) $\times 100\text{cm}$ 이고, 깊이는 $170\times 190\text{cm}$ 이다(사진 10). 또한 쌓아올린 돌담을 기준으로 볼 때는 낮은 쪽이 6단, 높은 쪽이 9단으로 축조돼 있다(강창화·정광중, 2014: 167). 노루텅은 보통 지형의 높낮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설치하였는데, 경사면 위에서 뛰어놀며 먹이를 쫓던 야생노루가 경사면이 낮은 아래쪽으로



<사진 10> 노루텅 1(곶자왈 삼림 내)



<사진 11> 노루텅 2(탐방로 부근)

떨어지도록 구안한 것이 큰 특징이다. 노루텅의 좌우 측으로는 보통 외담이나 겹담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곶자왈 내의 경작지(산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루텅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곶자왈 내에 조성한 경작지 내로 야생노루가 들어와서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노루의 피와 고기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노루텅은 기본적으로 곶자왈 내에 조성된 경작지 가장자리에 설치한 경우가 많으며(총 4기), 일부는 지형적인 높낮이가 아주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사진 11).

(7) 머들

선흘곶자왈 내의 머들(경작과정에서 나온 불필요한 돌무더기)은 1회용 숯가마 터처럼 아무 곳에나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경작지(특히 산전)로 조성하여 사용했던 장소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작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선흘리 주민들이이며 전 세대를 포함하여 현세대의 고령층이 실제의 경험자들이다. 경작지는 갑오년(1894년)을 전후하여 1950년대 말까지 주로 개간·경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12> 머들 1(소형: 원탑형)

머들의 형태와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곶자왈 내의 머들도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는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흘곶자왈 내의 머들은 그것들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1m 높이의 낮은 것에서부터 5~7m 높이의 높게 쌓은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또한 형태도 원탑형(또는 원뿔형)을 시작으로 직사각형 혹은 다면체형이나 부정형을 띠는 것까지 온갖 형태가 등장한다(사진 12~13).

그리고 선흘곶자왈 내의 머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강창화·정광중, 2014: 170). 이것은 곶자왈의 용암류가 흘러 들어온 이후 아직도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선흘곶자왈의 용암류는 풍화과정을 덜 거친 나머지, 용암류는 현시점에서도 작은 돌조각으로 쪼개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8) 궤(바위굴)

선흘곶자왈 내에는 소형 용암동굴이나 혹은 두껍게 쌓인 용암류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면서 동굴의 입구처럼 형성된 ‘궤’(바위굴)가 상당수 분포한다. 제주 어 사전(2009: 101)에 따르면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사진 13> 머들 2(대형: 다면체형)

절벽 따위로 가리어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이라 정의하고 있다. 선흘곶자왈 내부에는 용암류에 의해 형성된 높은 절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용암류가 두껍게 지표면을 흐른 뒤 부분적으로 파괴되면서 굴처럼 형성된, 말하자면 궤가 여러 곳에 산재하여 분포한다. 이러한 궤는 선흘곶자왈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연자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선흘곶자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휴식처인 동시에 제사와 신앙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부는 선사인들의 일시적인 주거지(rock shelter)로도 활용되었다.

선흘곶자왈 내에서 궤의 이용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숯을 제조하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인 숯막과 움막으로서, 마을제를 지내는 포제단(선흘1리 포제단), 또는 여성들의 신앙공간인 신당(선흘1리 탈남방일훼당)으로 이용된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 한마디로 궤라고 해도 그것의 형태나 규모는 매우 다양하며(사진 14~15), 동시에 활용할 수 없는 형태의 것들도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숯을 굽거나 농사를 짓는 경작지 주변에 궤가 존재할 때 비로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궤를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궤의 활용에서 다소 특이한 것은 1회용 숯막을 많이 분포하는 지구 내에서도 궤에 의지하여 숯막을 축조하여 사용한 사례들이다(사진 14). 전체의 숯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0여개소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 이들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궤와는 달리 궤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원형이나 타원형 등으로 돌담을 쌓아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궤와 나무를 후면에 두고 제단을 조성한 마을(선흘1리) 포제단에서는 현재까지도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祭祀)를 지내며 활용되고 있다.

2) 선적 유형

(1) 경계용 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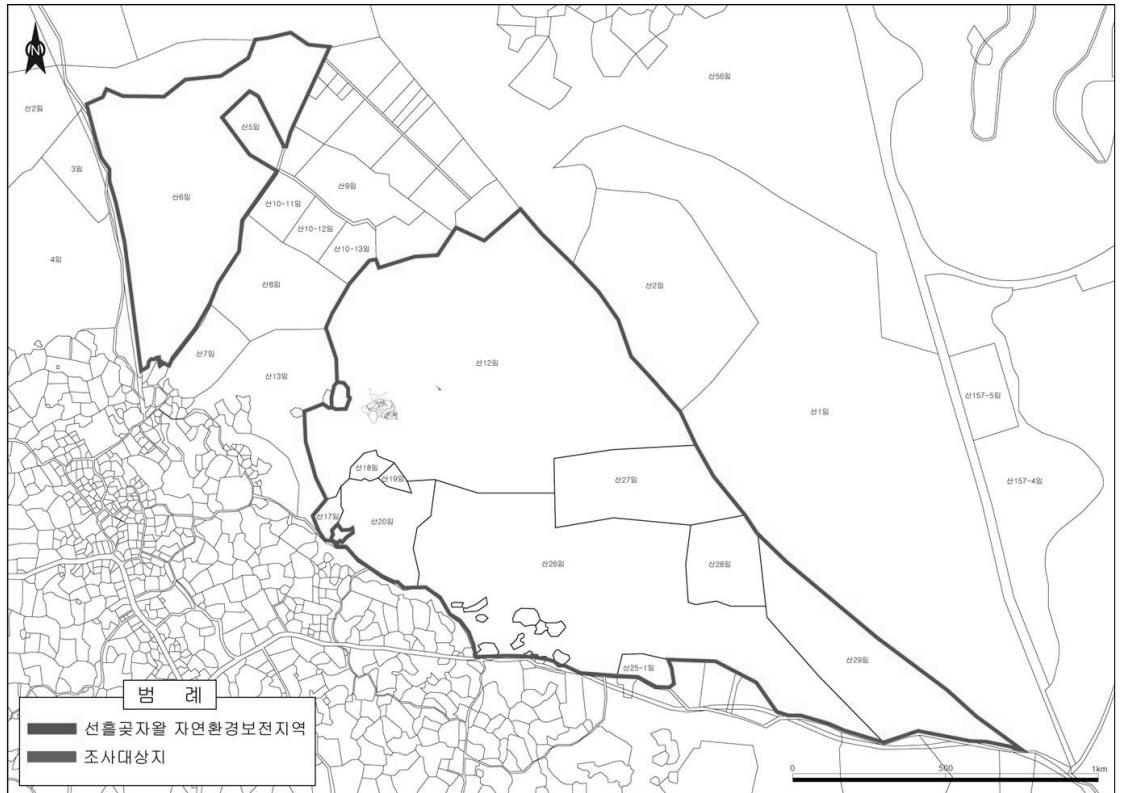
선흘곶자왈 내의 경계용 돌담은 선적 유형의 자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경계용 돌담은 정확히 쌓아올린 시기는 불분명하나 현재의 선흘곶자왈(시험림) 내의 지적(地籍)을 구분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간에 따라서는 외담과 겹담이 형태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선흘곶자왈 내 산림청에 소속된 시험림은 지적도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임야(林野)로 구성돼 있는데 필지수로는 총 11필지로 나타난다(그림 2). 따라서 경계용 돌담의 기본은 이들



<사진 14> 궤를 활용한 숯막



<사진 15> 궤를 의지 삼아 조성한 마을 포제단



자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자료(2012)

<그림 2> 선호꽃자왈 내 시험림 소유 토지의 지적도

11개의 필지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산림청이 소유하는 선흘곶자왈의 면적을 놓고 볼 때 11개의 필지로 구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체 면적에 비해 필지수가 너무나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초 단계에서 선흘곶자왈의 토지소유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적어도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선흘곶자왈 지역의 토지(임야)는 다른 곶자왈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 대다수의 마을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 쟁탈전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고현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개

인이든 마을이든 토지 소유권이 분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부의 토지(임야)는 여러 개의 필지로 구획되어 소유권이 인정과 함께 경계용 돌담을 쌓아올리게 되었으나, 일부의 토지(임야)는 여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큰 필지로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선흘곶자왈 내의 경계용 돌담은 기본적으로 소유 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선(경계선)이 중심이라 할 수 있지만,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195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우마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목장용 돌담도 부분적으로 쌓아올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장용 돌담은 지적도 상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협시전에서는 산뢰 속에 가려져 있어



<사진 16> 경계용 돌담



<사진 17> 경작지 돌담(산전)

현실적으로 그 실체를 전부 확인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용도의 돌담 자체를 서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불어 임야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던 경계용 돌담이나 우마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용 돌담들은 여러 구간에서 허물어진 곳이 많아서 경계선 자체의 의미도 거의 퇴색된 상황이다(사진 16). 현재 남아 있는 경계용 돌담이나 목장용 돌담들은 기껏해야 2~4단 높이의 형태(현무암)로 남아 있으며, 구간에 따라서는 이빨이 빠져 있는 모습처럼 잔존상태도 매우 허술한 상태이다. 결국 과거로부터 2가지 목적으로 쌓아올린 경계용 돌담은 현시점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 경작지 돌담

경작지 돌담은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경계용 돌담과는 달리, 농업적 생산활동을 위한 경작지(산전과 강못) 조성과정에서 경작지의 가장자리에 두룬 돌담을 가리킨다. 선흘곶자왈 내에 분포하는 경작지는 매우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전체 곶자왈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따라서 이들 경작지를 둘러싼 돌담의 총 길이(연장)도 어느 정도인지 전체상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작지 돌담은 기본적으로 보리, 조, 피, 산더 등을 재배하는 산전(山田)용 돌담과 습지를 이용하여 쌀(논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강못용 돌담이 있다. 두 경지의 주위를 둘러싼 돌담을 비교하면, 산전용 돌담이 비교적 낮게 쌓은 반면 강못용 돌담은 높게 쌓아올렸다는 점이다(사진 17). 물론 이들 돌담용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현무암의 자연석으로 매우 각이 진 돌들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선흘곶자왈 내의 용암류 자체가 풍화가 덜 된 상태로 파괴된 암석들이 아직도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린다. 이러한 경향은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삼림 속에 위치하는 산전용 경작지의 돌담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또 상대적으로 볼 때 강못용 돌담은 돌담 재료를 부분적으로 각을 제거하여 쌓아올린 흔적이 역력하다. 그만큼 쌀을 생산하려는 강못의 경우는 일단 물이 고이는 습지가 아니면 논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마을 주민들 간 경쟁도 치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강못을 확보한 후에는 한 집안의 소중한 재산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경작지 돌담도 정성껏 쌓아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18> 목시물굴 입구



<사진 19> 목시물굴 내부

(3) 용암동굴

최근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흘곶자왈 주변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은 반못굴[도톨굴], 목시물굴 및 대섭이굴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용암동굴은 제주 4·3사건 당시 일시적인 또는 장기적인 집단 은거지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목시물굴 등은 신석기 시대 때 선사인들이 거주하던 장소로도 알려지고 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a, 50-52).

이들 용암동굴은 숯을 제조하거나 혹은 산전과 강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사인들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흔적이나 제주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 당시 주민들의 피신처로 사용했던 장소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안고 있는 인문화된 자원임에는 틀림없다. 나아가 용암동굴은 선흘곶자왈 내의 다른 역사문화자원들과 더불어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 선흘곶자왈 내 농경지 종류와 주요 재배작물

농경지 종류	조성 시기	재배 작물	경지화 과정의 특징
산전	1894년(갑오년) 이후~1950년대 말	보리, 조, 피, 산티 등	경지 내에 머들이 존재
강못	1940~1950년 전후	논벼(水稻)	습지 가장자리에 돌담을 두름

자료: 현지조사 및 청취조사에 의해 작성

3) 면적 유형

(1) 경작지

선흘곶자왈 내 농경지의 분포 패턴은 점상으로 드문드문 분포한다. 이러한 배경은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농경지로 조성할 수 있는 장소에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최소한의 토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선흘곶자왈 내에는 상대적으로 용암류의 암반이나 암괴류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농사지의 만한 토양을 지닌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흘곶자왈 내에 농경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마을 내 자택과의 거리나 필요에 따라 음용수나 농업용수를 구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따라서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한정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 20> 경작지(산전)



<사진 21> 경작지(강못)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흘곶자왈 내의 경작지는 산전과 강못으로, 두 가지 형태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이들 중 산전은 대략 1894년(갑오년)~1950년대 말까지 농가단위로 조성하여 보리, 조, 피, 산듸 등을 재배하였으며, 또 강못은 적어도 1940~1950년을 전후한 일정시기에 주로 벼를 재배하기 위해 적당한 습지를 선택하여 조성되었다. 특히 강못은 선흘1리 주민들이 관리하던 알마장(주로 산 6번지 일대, 그림 2) 주변에 많이 분포한다. 규모는 10여 평에서부터 300여 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지만(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b), 곶자왈 내의 지역 특성상 대부분은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었다. 강못에서 벼농사를 통해 얻은 쌀이나 산전에서 수확한 보리, 조, 피, 산듸 등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가정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목적이자 수단이었다. 특히 쌀이 귀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비록 작은 면적에서 수확한 쌀일지라도 집안의 대소사(제사, 명절, 소상과 대상, 결혼식 등)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2) 생활유적 밀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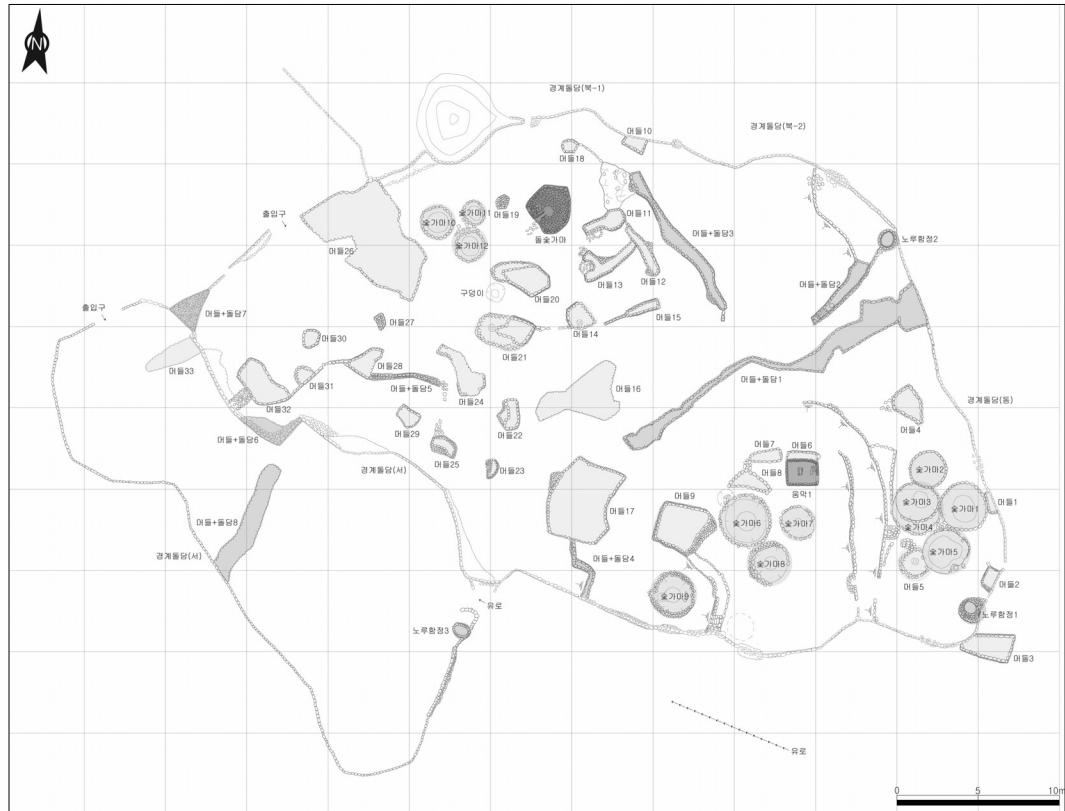
생활유적 밀집지구는 크게 2개의 지구로 분리된 선흘곶자왈(산림청 시험림) 내에서도 아래쪽 지구 즉

산 12번지(임야) 내의 서쪽에 위치한다(그림 2). 이곳에는 산전(적어도 6필지)을 비롯하여 돌숯가마 1기, 1회용 숯가마터 12기, 머들 약 33개, 머들 및 돌담 8개, 노루텅 3기, 숯막 1기, 토광(흙을 채취했던 장소) 1개소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구이다(그림 3). 생활유적 밀집지구(산 12번지)는 1953년 이후 선흘리 주민들이 조직한 2개의 삼림계(상, 하 삼림계)에 의해 보호되던 지구이기도 한데, 이곳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산 17~20번지(임야)는 물론이고 그 위쪽(북동쪽)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 6번지(임야)와 함께 하동 주민들이 조직한 하삼림계의 보호구역이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b: 121-129).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산 25-1번지(임야)와 산 26~29번지(임야)는 상동 주민들이 조직한 상삼림계의 담당구역으로 보호되던 지구였다.

생활유적 밀집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이 비교적 작은 장소 내에 밀집돼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 자원들이 모두가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 자원들은 조성 시기나 사용 시기도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3) 점적 · 선적 유형 자원이 동시에 분포하는 특정 지구

면적 유형의 자원 중에서도 ‘경작지 외에 점적 유



자료: 강창화·정광중, 2014, p.160.

<그림 3> 생활유적 밀집지구 내 역사문화자원 분포

형의 자원과 선적 유형 자원이 동시에 분포하는 특정 지구’는 말 그대로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2가지 유형의 자원들이 비교적 작은 지구 안에 몰려 있는 상황을 전제하여 설정한 것이다. 실제로 선흘곶자왈 내부를 답사하다보면, 특정지구 안에 1회용 숯가마 터와 숯막, 물텅이나 경계용 돌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포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유형의 자원이 동시에 분포하는 특정 공간은 경작지나 생활유적 밀집지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면적 유형의 자원으로 평가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분하였다.

4. 활용을 전제한 역사문화자원의 평가

1) 역사문화자원의 평가 시점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다(표 3). 여기서 2가지 관점이란 하나는 보존 가치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 가치적 측면이다. 먼저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가치적 측면은 선흘곶자왈 내에 분포하는 점적, 선적 및 면적 유형의 자원들의 보존 필요성 또는 당위성과 관련된 사실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이 지니는 상징성과 역사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생활 문화상 등을 반영하는 관점이 된다. 또한

<표 3> 역사문화자원의 평가 시점

평가 시점	관련 근거 또는 배경	판정 지표
보존 가치적 측면	보존 필요성, 상징적 의미, 도민 생활문화와의 관련성	희귀성(시대성), 원형유지(도)
자원 가치적 측면	교육 자원적 활용도, 관광 자원적 활용도	경제성, 접근성

자료: 자원별 속성을 토대로 필자 작성

자원의 보존 가치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희귀성(시대성)과 원형 유지 정도가 어느 정도 충족 조건(판정 지표)으로 작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 가치적 측면은 여러 자원들의 효용성을 전제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다. 따라서 교육 자원적 가치와 관광 자원적 가치라는 활용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충족 조건(판정 지표)으로서 경제성과 접근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3: 67).

<표 3>과 같이 자원들의 평가 시점과 판정 지표를 토대로 선흘곶자왈 내에 분포하는 3가지 유형의 자원들을 평가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들 자원의 위치나 기능상 서로 연계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자원들이라는 사실이다. 가령 숯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숯가마(터)는 물론이고 최종 단계에서 크고 작은 숯을 골라내며 서로 배분하기 위한 작업장, 일시적인 휴식처이자 거주지인 숯막[움막], 숯 제조 마무리 단계에서 불씨를 끄는데 필요한 물 저장소인 물탱 등은 양(量)에 관계없이 단 1회의 숯을 제조하는 데도 필요한 자원들이다. 또한 산전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를 확보한 후에 경계용 돌담을 둘러야만 개인별 경작지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머들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야생노루를 잡기 위한 노루텅도 산전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면서 동시에 동물성 지방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들은 궤나 용

암동굴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원을 제외하면 단독적으로 기능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선흘곶자왈 내에 분포하는 궤나 용암동굴도 원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자원이기는 하나, 선흘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특정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된, 말하자면 인문화된 자원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할 때 궤나 용암동굴도 그것이 형성된 이후 인근지역 주민들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선흘곶자왈 내 3가지 유형의 자원들 중에서도 용암동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선흘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나타난 자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자원 하나하나는 선흘곶자왈이라는 특수한 지역 내에서 선흘리 주민들에 의해 탄생된 경제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생각하면,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이 지니는 속성과 상징성은 제주도 전체의 역사와 민속, 생활 문화상을 대표하는 측면과 비교하여 견줄 수는 없다. 따라서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자원은 제주도 동부지역의 곶자왈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경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특수한 사례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역사문화자원의 평가

여기서는 선흘곶자왈 내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원별 평

가의 배경에는 유형별 자원들의 효용성을 전제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자원별 속성은 이미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절에서의 평가 결과는 앞으로 선호곳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3: 68).

선호곳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은 앞서 검토한 2가지 평가 시점과 4가지 판정 지표를 바탕으로 <표 4>와 같은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표 4>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먼저 4가지 판정 지표에서 모두 상위로 나타나는 자원은 점적 유형 자원의 돌숯가마(1), 선적유형 자원의 용암동굴, 그리고 면적 유형 자원의 생활유적 밀집지

구 등 유형별로 각 1개씩 확인된다. 3가지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점적 유형 자원의 노루텅, 면적 유형 자원의 경작지(산전, 강못)이며, 2가지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점적 유형 자원의 물텅, 머들, 궤, 선적 유형 자원의 경작지 돌담 등 4개 자원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자원은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자원별 활용과정에서의 연계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자원들 중에서도 돌숯가마(1)(2)나 노루텅은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생활유적 밀집지구는 다양한 자원이 밀집돼 있는 장소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활동이나 체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역사문화자원의 판정 지표별 평가

자원명	보존 가치적 측면		자원 가치적 측면	
	희귀성(시대성)	원형유지(도)	경제성	접근성
돌숯가마(1)	○	○	○	○
돌숯가마(2)	△	△	△	○
1회용 숯가마터	△	×	×	○
작업장(숯 제조)	△	△	×	○
숯막[움마]	△	△	△	○
물텅(통)	△	○	△	○
노루텅(통)	○	△	○	○
머들	×	○	×	○
궤(바위굴)	×	○	×	○
선적 유형	경계용 돌담	×	×	○
	경작지 돌담	○	△	○
	용암동굴	○	○	○
면적 유형	경작지(산전, 강못)	○	○	○
	생활유적 밀집지구	○	○	○
특정 지구	점적·선적 유형의 자원이 동시에 분포하는 특정 지구	×	×	△

○: 상[뛰어남] △: 중[보통] X: 하[떨어짐]

자료: 현지조사 및 청취조사에 의해 작성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선흘곶자왈에 분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형 분류함과 동시에 자원의 속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용을 전제하여 자원별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흘곶자왈 내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은 외형적 형태를 토대로 점적 유형, 선적 유형 및 면적 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적 유형의 자원에는 숯가마(또는 숯가마 터)를 비롯하여 작업장, 숯막 [움막], 노루텅, 물텅, 머들, 궤가 포함되며, 선적 유형의 자원에는 경계용 돌담, 경작지 돌담 및 용암동굴이 포함된다. 그리고 면적 유형의 자원에는 경작지인 산전, 강못, 생활유적 밀집지구 및 점적·면적 유형의 자원들이 동시에 분포하는 특정 지구가 포함된다.

3가지 유형의 자원들은 숯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요소, 농업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 일시적인 거주나 휴식에 필요한 장소로 구성되며, 이들은 과거에 주로 선흘리 주민들이 생활경계를 떠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축조·사용했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오늘날 선흘곶자왈 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 후반까지 선흘리 주민들의 생활역사의 단면을 복원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존재로서 가치성이 크게 부각된다.

활용성을 전제한 역사문화자원의 평가 작업은 2가지 평가 시점, 즉 보존 가치적 측면과 자원 가치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전자와 관련해서는 희귀성(시대성)과 원형유지(도),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성과 접근성이라는 판정 지표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4가지 판정 지표에 의해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돌숯가마(1), 용암동굴(목시물굴) 및 생활유적 밀집지구 등 3개이고, 3가지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노루텅, 경작지(산전, 강못) 등 2개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가지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은 물텅, 머들, 궤, 경작지 돌담 등 4개가 포함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2가지 이상의 판정 지표에서 상위로 평가된 자원들은 앞으로의 활용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도를 전제할 때 본 연구에서 행한 평가 결과 자체도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

- 1) 이 보고서는 2012~2013년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일반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결과물이다.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연구소의 김찬수·최형순 두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두 분의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2) 유형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서로 묶은 하나의 틀 혹은 그 틀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역사문화자원의 외형적 특징과 활용도를 전제하여 개별 자원의 속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 활용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3) ‘돌숯가마’는 정광중외의 연구(2013: 37-55)에서는 ‘곰숯가마’로 표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중시하여 명명했던 표현이다. 그러나 재차 조사한 결과, ‘곰숯가마’라고 표현하는 정확한 의미나 배경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 숯가마의 축조 재료를 바탕으로 한 ‘돌숯가마’로 고쳐 사용하고자 한다. 두 연구에서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돌숯가마’나 ‘곰숯가마’는 동일한 숯가마임을 밝혀둔다.
- 4) 생활유적 밀집지구는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약 7,500m² (2,500평)의 한정된 면적에 숯가마(돌숯가마, 1회용 숯가마)를 비롯하여 숯막, 노루텅, 산전, 머들 등이 밀집돼 있는 지구를 말한다. 그런데 강창화·정광중의 연구(2014: 153-173)에서는 ‘생활유적 밀집지구’를 ‘단위생활지구’로 표현하여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마을주민들의 농업생산 활동과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생활유적 밀집지구’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김대신 · 김봉찬 · 송시태, 2008, “제주도 곶자왈지대의 식물상”, *한국자연보호학회지* 2(2), 91-103.
- 김효철, 2006, “자본과 개발의 식민지, 제주도”, *환경과 생명* 48, 182-192.
- 강창화 · 정광중, 2014, “제주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자원의 분포실태와 특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1), 153-173.
- 송시태,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시태, 2006, “곶자왈용암”(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라산의 지형 · 지질*), 144-172.
- 송시태 · 김효철 · 김대신 · 류성필 · 좌승훈, 2007, 제주의 곶자왈,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 송시태 · 윤선, 2002, “제주도 곶자왈지대의 용암: N0. 1. 조천- 함덕 곶자왈지대”, *지질학회지* 38(3), 377-389.
- 신정훈, 2012, “제주고사리삼(고사리삼과) 서식지의 환경특성- 개체군동태와 환경처리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태학적 반응-”,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남, 2003, “제주도의 난개발 실태와 녹색의 대안”, *환경과 생명* 38, 204-216.
- 이경미 · 신정훈 · 정현모 · 김해란 · 김정호 · 신동훈 · 유영한, 2012, “멸종위기 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입지와 식생구조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습지학회지* 14(1), 35-45.
- 전용문 · 안웅산 · 류춘길 · 강순석 · 송시태, 2012,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예비 연구결과”, *지질학회지* 48(5), 425-434.
- 정광중, 2004, “곶자왈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육대학논문집* 33, 41-65.
- 정광중, 2012, “제주의 숲, 곶자왈의 인식과 이용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2), 11-28.
- 정광중 · 강성기 · 최형순 · 김찬수, 2013, “제주 선흘곶자왈에서의 숲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4), 37-55.
- 제주특별자치도, 2009, 개정 중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사), 2012a, *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조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사), 2012b, *곶자왈의 역사유적 현황조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사), 2013, *곶자왈의 보전 및 이용 기술 개발: 곶자왈의 역사유적분포 · 실측조사 및 역사문화자원 평가 · 활용 기술개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Hong-Gu Kang, Chan-Soo Kim and Eun-Shik Kim, 2013, Human Influence, Regener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Gotjawal Forests in Jeju Island, Korea,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 2(2), 85-92.

투고일 2014. 05. 02

수정일 2014. 06. 18

확정일 2014. 06. 21